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트마리
파견대학	알고마대학	기간	19.01.15.~19.02.05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알고마 대학교는 토론토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수세인트마리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시설은 좋았습니다. 학교 밖은 -20도여도 학교 안은 매우 따뜻했습니다. 우리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수업	레벨 테스트를 한 후 A반과 I반으로 나눈 후 문법, 읽기, 듣기 등의 수업을 받습니다. 선생님들은 대부분 친절하시고 좋았습니다. 수업 준비는 필기도구와 공책만 필요하고 과제는 하루에 10분정도 투자하면 될 양이었습니다. 문법 수업은 매 시간마다 쪽지시험을 봤습니다.
Activity	스케이트 타기, 알파카농장 체험, 개썰매 타기, 스키 타기, 하키 경기 관람이 있었습니다. 스케이트 신발은 홈스테이 가족들이나 학교에서 빌릴 수 있었습니다. 스키를 탈 때는 홈스테이 가족께서 스키복을 빌려주셨고 스키장에 가면 설문조사를 한 사이즈대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돈이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수세인트마리는 눈이 정말 많이 옵니다. 날씨 때문에 토론토에서 수세인트마리로 갈 때 비행기가 취소되었고 학교 스케줄이 변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롱패딩, 부츠, 장갑은 필수고 정말 추웠습니다.
안전	매우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안전했지만 저녁때는 가로등이 우리나라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버스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적은 버스를 타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 홈스테이 집마다 규칙이 있는데 캐나다는 물이 비싸기 때문에 샤워를 10분 안에 해야 합니다. 방과 화장실은 매우 넓고 깔끔했으나 잠옷 3개를 입고 이불 4개를 덮어도 너무 추웠습니다.
식사	학교식당(o) 홈스테이(o) 외부식당(o) 기타() 아침은 집에서 시리얼이나 토스트를 알아서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침은 안 먹었고 점심은 홈스테이 분께서 빵이나 샌드위치, 전날 먹었던 음식들을 싸주셨습니다. 전날 먹은 음식이 질리면 친구들이 싸온 점심을 같이 나눠먹었습니다. 맛이 없을 때는 한국에서 싸온 라면이나 한국 컵밥 등을 먹거나 학교 내에 있는 팀홀튼에 가서 사먹기도 했습니다. 저녁은 홈스테이 분과 함께 먹거나 친구들과 밖에서 사먹었습니다.
교통	학교에서 버스카드를 나눠주는데 잃어버리면 다시 사야 됩니다. 평일에는 30분, 주말에는 1시간 간격으로 있어서 시간표를 잘 보고 타야 됩니다. 택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매우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715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25600	
개인 지출	800,000	식비, 생활비, 기념품, 토론토 등
유심	60,000	핸드폰 유심
합계	2,600,600	

5. 출국 전 준비사항

일단 출국 전에 예치금 납부, 항공료납부, 보험료 납부 후 유심구입, 환전을 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히트텍, 목도리, 장갑, 부츠, 핫팩은 필수입니다. 전기장판, 고데기 등은 110V 연결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스테이 집이 추운 집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잠옷을 두껍고 따뜻한 것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에어캐나다를 탔는데 위탁수하물이 바로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세인트마리에 도착했을 때와 한국에 도착했을 당일 캐리어를 받지 못 한 친구들이 15명 중 5명이었습니다. 세면도구나 여벌옷을 기내수하물에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추천받을 곳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시골인 곳이지만 교환학생들과 홈스테이분들의 추천으로 식당과 마트, 쉼매장을 다니면서 재밌게 보냈습니다. 정보가 없어도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3주동안 영어를 배우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른 나라의 음식을 먹고 문화의 차이점을 느끼고 다른 나라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론토에 하루 있었을 때 인종차별을 받았지만 수세인트마리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스키장에서 넘어져있으면 괜찮냐고 물어봐주시는 분들과 늦은 밤에 데려다주시려는 다른 홈스테이 가족들과 같은 수세인트마리 사람들 덕분에 행복한 3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스키	하키 경기 관람



학교에서 먹으러 간 스시



알파카 농장



스케이트



수세인트마리 풍경